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풍덕동 1747-4번지 우:57995 (2018 10월 중순 교회 이전 주소)

성문교회밴드(링크: <http://band.us/n/a8a0U2qfUdH7Ll>)

경리010.6677.4023/미션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 성문 교회 52번째 이야기]

[예배당 건축 이야기]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예배당 건축이 완공되기 전에 사택이 일찍 나갔습니다. 건축업자는 일주일만 지나면 집을 넣어 놓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이삿짐센터에 짐을 맡기고 일주일정도 옷가지만 챙겨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유아실에서 지내려는데 청년부 자매가 본인은 옆동 언니 집으로 가겠으니 제 집에 지내라며 집을 통채로 내주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자매 집에 저희가족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늦어져서 그 시간은 일주일 아닌 한 달이 되었고, 또 다시 교회로 나와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교회 피아노 선생님께서 함께 살자고 하여 저와 세아들은 선생님 집에서 살고 남편은 교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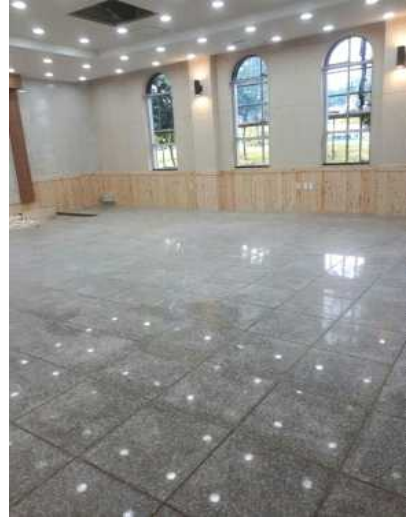
그 기간 동안 교육관도 나가고 교육관과 교회 일부 십자가 간판 등 원상복구 철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유아실이 없어져서 장의자 두개를 붙여서 미니 유아실을 만들고 남편은 그곳에서 기도하며 한 달동안 잠을 청했습니다. 이삿짐센터에서 더 이상 짐을 맡아주지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건축업자에게 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약속대로 해주지 않아서 짐을 1층 예배당에 퍼놓고 일주일 후 창문도 없어서 뽕 뚫린 곳에 짐을 다시 옮겨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건축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만 연락이 오고 찾아왔습니다. 그 후 건축업자를 백방으로 찾고 다녔으나 찾을 길이 없어 결국 법무사에 알아보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남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문 없는 곳에서 지내는 저희가족을 보며 샷시사장님께서 급히 샷시를 달아주시어 바람도 먼지도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보일러가 되지 않아서 멀리 공원까지 화장실을 가야 했고 물은 버너로 데워서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다행히 시아버님께서 변기 한대와 샤워기를 달아주셔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가족과 성문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흘렀기 때문입니다.

[1층 예배당 인테리어 공사]

건축현장을 보러오신 시아버님께서 완성되지 않은 예배당을 보시며 “아버지가 해주마” 말씀하시고 몇일 뒤 아버지,어머니,큰 고모님 오셔서 3일을 꼬박 바닥 돌 붙이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2주일 후엔 막내고 모님까지 오셔서 강대상 바닥 공사와 벽 걸레받이 타일 붙이는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고모님 두 분이 바닥 돌 값을 지불해주셔서 감사인사 하는 우리에게 막내고모는 웃으며 “선물이다” 하시고. 큰고모님은 “나 하나님한테 복 받을라그려~”라고 하셨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예배당이 완성되었고 몇주후 그 위에 이삿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 사명의 교회 주바라기 비전트립]

사명의 교회 청년들이 비전트립을 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완공되어 2층 교육관을 숙소로 사용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미완성된 곳에 청년들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는 첫날부터 뜨거운 태양아래 현장 주변 쓰레기와 건축자재 등을 치우고, 1층에 남겨진 이삿짐을 2층 3층으로 다 옮겼습니다.

둘째날은 교회학교 아이들과 찬양하고 율동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교회 아이들은 연실 즐겁다 재밌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하하호호 행복해 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니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셋째날은 교육관 환경정리, 1층 예배당과 계단청소, 건물주변 마무리 청소를 했습니다.

저희교회는 이런 일들을 함께할 장년이 없어서 남편과 둘이 긴 시간들여 했어야 할 일들이었는데, 사명의 교회 목사님과 청년들의 수고로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청년들이 청소도구, 화단꾸미 도구, 간식, 전도용품 까지 다 준비 해 오셔서 재정의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한 목사님과 청년들의 손길에 감사했습니다. 3일 동안 폭염 속에서 흘린 청년들의 땀방울이 예배당 건축현장에 떨어졌으니 그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비전트립 통해 받은 사랑과 선물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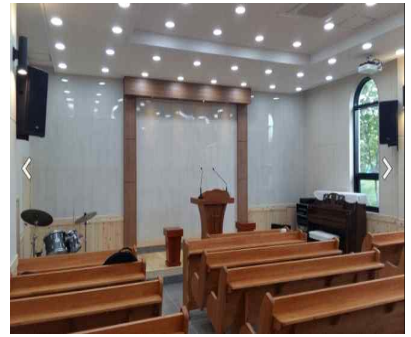
재정이 부족한 교회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다 구입할 수 없어서 장의자와 강대상을 그대로 옮기려 했는데 목포월산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 튼튼한 장의자를 제작하게 되었고, 음향장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월산교회 집사님 통해 예배당 피아노도 채워졌습니다.

연향동 교회 주변 상가 통닭집 아주머니와 미용실 원장님 통해서 강대상과 예쁜 종과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헌금함과 헌금봉투 꽃이 구입하라고 후원해주신 어느 권사님과, 십자가와 간판 구입비 후원해주신 어느 집사님과, 교육관 책장과 테이블 제작하고 설치해주신 목사님과 선교사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건축헌금해주신 여러 교회와, 개인적으로 마음을 드려 건축헌금과 응원의 전화 해주신 많은 분들~~ 성문교회는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으로 성문교회의 주인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축업자가 변호사 대동해서 법정에서 보자고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더 많은 업자들이 돈을 받지 못했다고 찾아오고 전화를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답답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 했습니다. 좀 더 지혜롭지 못했고, 상의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좁은 소견으로만 바라보고 결정하였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섰음을 회개 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삶의 지혜를 배워가며,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법을 배워가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책과 정죄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여 힘과 지혜와 담대함 주실 주님만 믿고 승리하렵니다.

요셉의 인생길에 어려움, 다윗의 인생길에 어려움, 욥의 인생길에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을때 받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 기억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기에 이겨내고 오직주님만 바라보렵니다. 성문교회와 남편과 저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지고 앞으로 오천지구 땅을 밟으며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서 복음전할 일들 생각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경리 이미선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경리 이미선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이경리와 이미선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건축업자와 계약해지를 통한 반환금 문제 해결과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남은 잔금을 가지고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2. 교회 이전 문제와 함께 성도들이 교회 이전 후에도 계속 본 교회에 출석 할 수 있도록
3. 교회 준공 예정일이 10월 중순입니다.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간판과 십자가가 없어서 전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준공 후에 간판과 십자가를 설치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기도바랍니다.)
4. 아직 준공 되지 않은 건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안전과 주변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예배도 완공되지 않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5.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아내 어깨수술 후 아직도 회복이 덜 된 상태)